함평군, 국화·음악·체험이 어우러진 오감축제로 '관람객 매료'

'마법의 국향랜드'로 변신한 함평, 가을의 매력에 빠지다

전남 함평군(군수 이상익)이 개최 중인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국화 향기와 함께 울려 퍼지는 가을 선율로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함평군은 31일 "'마법의 국향랜드'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는 전국 최고 가을꽃 축제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성황리에 진행 중"이라며 "올해 처음으로 주말마다 펼쳐지는 '브라스밴드 퍼레이드 및 공연'이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브라스밴드 퍼레이드에는 전문 마칭밴드 '붐비트'와 '비브스'가 참여해 화려한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브라스 밴드는 금관 악기를 중심으로 편성된 악대를 일컫는다.

퍼레이드는 저글링, 포토맨, 키다리삐에로, 비보이 댄서, K-POP 댄스팀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단이 함께 어우러져, 함평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을 출발해 잔디광장과 마법의 성, 중앙광장을 지나 주무대까지 행진하며 관람객들에게 흥겨운 축제 분위기를 선사한다. 또 주무대에 도착해서는 마칭밴드와 댄서, '서울사람 강한구'의 대형 인형 퍼포먼스, 저글링 공연이 현장 분위기를 한층 뜨겁게 달군다.

한 관람객은 "국화 향기 속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과 공연이 마치 유럽의 축제에 온 듯하다"며 "아이들과 함께 걸으며 음악과 퍼레이드를 즐길 수 있어 더욱 특별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올해 국향대전은 국화와 음악, 체험이 어우러진 오감형 축제로 거듭나고 있다"며 "브라스밴드 퍼레이드가 관람객들에게 또 하나의 특별한 추억이 되길 바라며, 남은 기간 동안도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은 10월 24일부터 11월 9일까지 17일간 함평엑스포공원 일원에서 개최되며, 주말마다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가을 축제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특히 중앙광장에는 '마법의 국향랜드'라는 주제에 맞춰 회전목마, 전시컵, 마법의 성 등 대형 국화조형물 포토존이 설치돼, 관람객들에게 어린 시절의 동심을 불러일으키는 가을 감성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함평/전광춘 기자

고흥군, 유자라면이 돌아왔다!

유자라면, 고흥유자축제에서 무료 시식으로 만난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오는 11월 6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제5회 고흥유자축제'기간 동안 지역 특산품인 유자를 활용한 특별 시식행사'유자라면 체험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첫선을 보인 유자라면은 고흥 유자의 향긋한 매력을 라면에 녹여내며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 서울 한강공원 시식행사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한 번 먹으면 잊기 힘든 라면'으로 입소문을 타고 돌아왔다.

축제 현장에서는 누구나 무료로 유자라면을 맛볼 수 있는 시식 부스가 마련된다. 유자라면은 고흥산 유자엑기스를 넣은 닭고기 육수로 만들어져, 첫 숟가락부터 상큼함이 입안을 감싸고 깊은 국물 맛이 이어진다. 유자 특유의 산뜻함과 라면의 감칠맛이 어우러져, 기존 라면과는 전혀 다른 '고흥만의 한 그릇'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축제에서는 유자를 활용한 유자김밥과 함께 유자라면을 선보여 방문객들의 오감을 한층 더 풍성하게 자극할 예정이다.

군 관광정책실 관계자는 "지난해 유자축제에서 유자라면이 처음 공개됐을 때 큰 관심을 받았고, 서울 한강공원 행사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며 "이번 축제에서도 유자라면을 통해 고흥 유자의 매력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람향기, 유자천국'을 주제로 열리는 제5회 고흥유자축제에서는 ▲유자청 경매 ▲유자청 담기 체험 ▲유자스파 ▲고흥 9미 음식페스티벌 ▲유자밭 힐빙시어터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된다. 고흥군은 이번 축제를 통해 '맛과 향, 그리고 사람'이 어우러지는 유자축제의 매력을 전국에 전할 계획이다.

고흥/박도일 기자

2025 순천만갈대축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스탬프 인증 이벤트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2025 순천만갈대축제(11. 1. ~ 11. 9.)' 기간 동안, 순천만습지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유네스코 순천 생물권보전지역 홍보를 위한 스탬프 인증 이벤트를 운영한다.

이번 이벤트는 순천만습지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2018년) 7주년을 맞아 추진되는 시민 참여형 홍보행사로, 순천만의 생태적 가치와 브랜드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순천만습지의 핵심 명소인 용산전망대 정상에 마련된 스탬프 날인 장소에서 손등에 스탬프를 찍은 뒤 순천만 역사관에서 인증하면 되고,

두 번째는 순천만갈대축제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순천만갈대축제, #유네스코순천생물권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SNS에 게시 후 순천만 역사관에서 인증하면 된다.

이벤트 인증을 완료한 참가자에게는 기념품이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순천만습지는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대표적인 생물권보전지역"이라며 "갈대축제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순천만의 생태적 가치와 아름다움을 담아 가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 순천만갈대축제'는 순천만습지 일원에서 '순천만, 야생의 생명을 품은 치유의 공간'을 주제로, 주민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탐방형 생태문화축제로 개최된다.

순천/정성인 기자

곡성군, 군민 1인당 30만원 '전남형 기본소득' 지급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곡성군 전남형 기본소득을 오는 11월 10일부터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곡성군 전남형 기본소득은 군민 1인당 30만 원이 지급되며 곡성심청상품권 형태의 선불카드와 모바일(착_chak) 상품권 두 가지 유형으로 지급되며, 신청·지급은 읍·면사무소와 모바일 두 가지 경로로 진행된다.

군은 군민들이 편리하게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일정을 단계적으로 운영한다. 먼저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는 읍·면 직원이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접수와 지급을 병행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위 기간에는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이 불가하며, 이후 11월 17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주민들이 직접 주소지 읍·면사무소 창구에 방문하여, 신청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바일(착_chak) 상품권의 경우에는 오는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기준일(2025년 4월 3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군민이다. 기준일 이전 출생 신고된 아동을 비롯해 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F-5), 국내 거소신고를 마친 재외국민도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거주불명자나 전출자, 사망·말소자 등은 제외된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일부 가맹점을 제외한 곡성심청상품권 가맹점 전반에서 사용할 수 있어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이번 전남형 기본소득은 침체된 군민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촘촘하게 안내하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은 지급 기간에 마을방송,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읍·면 창구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대상 누락과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곡성군청 홈페이지 공고문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곡성/이정수 기자

강진군, 제16회 광주·전남 사회공헌대축전 종합대상 수상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나눔과 상생의 복지 공동체 실현 인정받아

강진군이 2025년 광남일보에서 주관한 제16회 광주·전남 사회공헌대축전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군민이 중심이 되어 이웃과 지역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실천해 온 강진군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회공헌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다.

광주·전남 사회공헌대축전은 지역사회 발전과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관·단체·기업을 발굴·시상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강진군은 주민 참여형 복지정책과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강진군은 ▲이웃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나눔사업' ▲최고의 자원봉사자 육성을 위한 '자원봉사대학' 운영 ▲따뜻하고 아늑한 보금자리 '사랑의 집짓기' 추진 등 다양한 정책과 활동을 통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복지 실현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이 큰 호응을 얻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나눔과 봉사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면서 "앞으로도 나눔과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복지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진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지역 내 복지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모델을 확립하여, 따뜻한 복지 1번지 강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강진/손경설 기자

보성군, 농산물안전분석실 구축 공모사업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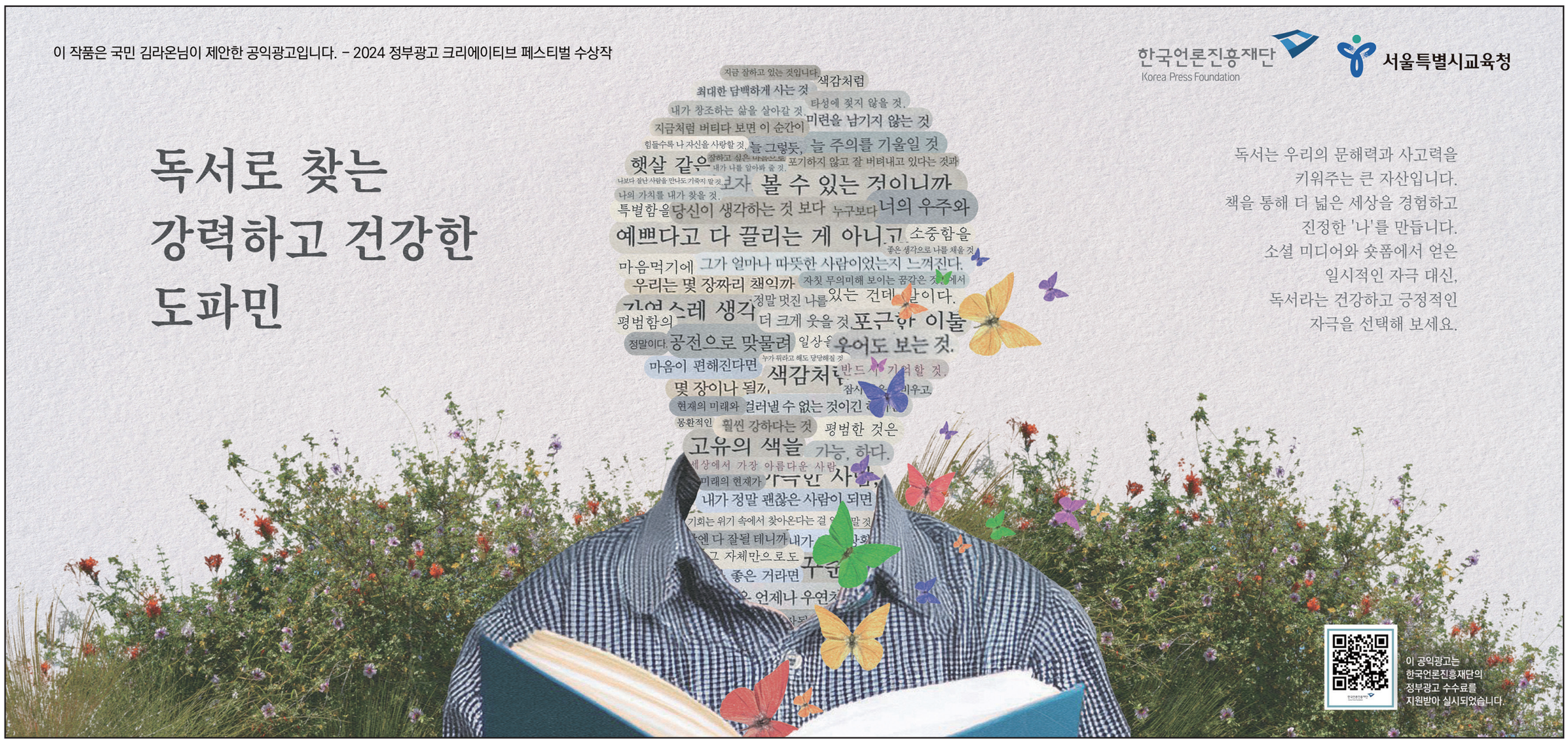
전남 유일 선정, 지역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신뢰도 향상 기대

보성군은 농촌진흥청이 추진하는 「2025년 농산물안전분석실 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며 총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산물 생산과 로컬푸드 유통단계의 안전성을 분석할 전문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전남에서는 보성군이 유일하게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보성군은 2009년부터 자체적으로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수행해 왔으나, 유통구조의 다양화와 소비자 요구 수준의 고도화에 따라 첨단 분석장비 확충과 실험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잔류농약 다성분 분석장비(LC-MS/MS) 등 정밀 분석 장비를 추가 도입하고, 시료 전처리 및 품질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연간 검사 처리능력을 기존 대비 약 150% 향상할 계획이다.

또한 분석실 공간 재배치와 환경 개선으로 근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 농산물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사 확대, 농업인 대상 잔류농약 저감 기술지원 등 서비스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장할 방침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장비 확충이 아니라, 지역 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이는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이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운기 기자